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영화의 벡터와 지형도 연구

-기억의 정치학과 트라우마 치유의 미학성을 중심으로-*

박영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부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 및 100주기 추념의 의미
2.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영화 제작 역사의 노정(路程)과 지형(地形)
3. 나오는 말 :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집단기억’의 예술적 재현과 성찰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15년 터키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의 역사적 아픔을 추념하는 100주기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2015년 이후, 한국에서는 관련된 역사·문화적 행사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무관심은 코카서스에 위치한 아르메니아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나라는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로마보다 앞선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자, 아라랏(Ararat) 산을 민족의 자부심으로 간직하는 영성의 국가이다.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동서남북의 강국 정복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어야 했던 지정학적 숙명이라는 부분에서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닮은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대학살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트라우마로 남겨진 ‘집단 기억’의 예술적 재현 양상을 고찰했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문제를 주요 테마나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영화 가운데 특히 주목한 것은 영화 제작 동기의 역사적·사상적 분기점이 되는 작품들, 아르메니아의 민족 정체성을 지닌 디아스포라 출신 감독들의 작품들, 미학적 관점에서 다큐멘터리와 예술영화의 다양한 영상 기법을 실험한 작품들이었다. 물론, 제노사이드 문제를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하는 몇 편의 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과제번호:2016S1A5A8017096).

미약해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제노사이드를 소재로 한 예술을 성장시키는 토양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때문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제노사이드의 가혹한 기억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며 자민족을 위한 치유를 염원했던 ‘기억과 치유로서의 영화’ 제작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터키, 집단기억, 아라랏, 디아스포라, 트라우마, 기억과 치유로서의 영화

ABSTRACT

**A Study on the Vectors and Topography of
Armenian Genocide Films
-Focusing on the politics of memory and
the aesthetics of trauma healing-**

Park, Young Eun
Associate professor /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with a critical realization that, whe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were hosting 100th anniversary events to commemorate the historical pain of the Armenian genocide that was perpetrated by Turkey in 1915, people in Korea hardly paid attention to these historical and cultural events. Such indifference may have been due to the fact that Armenia, which is located in the Caucasus region, is not a country that is well known to us. However, the history of Armenia, has many similarities with the history of our people, who have had to ceaselessly endure the suffering caused by being surrounded by world powers, as destiny located us at a crossroads for powerful invaders.

Based on such perceptions of history, this study considered ways in which the Armenian genocide appeared as the main theme of films. Primarily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led to the mass genocide, this study used the historical background as a basis to analyze artistic reproductions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rauma in the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Armenians. Out of the films that use the Armenian genocide as the main theme or as a temporal or spatial setting, the study especially highlighted films in which the genocide formed the historical or ideological motive for the production of the film, films that were made by directors of the Armenian Diaspora who possessed an ethnic Armenian identity, and films that experimented with the different visual techniques of documentary and art films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The ways in which Armenians left a visual record of the harsh memory of genocide and produced “films of memory and healing,” from a desire to heal their own people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Koreans.

Key words

Armenia, Genocide, Turkey, collective memory, Ararat, diaspora, trauma, films of memory and healing

논문투고일 : 2019년 04월 08일 / 논문심사일 : 2019년 05월 11일 /
논문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1일

1. 들어가는 말 :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둘러싼 국제역학관계 및 100주기 추념의 의미

2015년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1915~1923년 터키 정부가 150만여 명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 이것에 대해 2015년 전 세계는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특히 유엔(UN)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된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아르메니아가 주도했던 제노사이드 방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¹⁾ 이 결의안이 피해국이었던 아르메니아가 주도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지적인 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오늘날에도, 제노사이드 협약은 잔혹했던 역사를 종식시키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 국민이나 민족에 대한 파괴’를 뜻하는 ‘제노사이드’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것은 1943년 법학자 라파엘 렘킨(Rafael Lemkin, 1900-1959)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그는 ‘제노사이드’를 나치 독일을 제재하기 위해 규정한 개념으로 정의했다.²⁾ 그가 사용했던 ‘파괴’는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크고 작은 학살 및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 파괴, 모국어 사용 금지 등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일반적 ‘집단 학살’보다 폭넓은 개념을 지칭했다. 이러한 제노사이드의 의미 가운데 역사적 관점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가 더욱 주목받는 것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히틀러에 대한 유대인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³⁾

터키 측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통계지만, 1915-1916년 사이에 ‘거의 백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아르메니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이다.⁴⁾ 1922년까지 기간을 확대하면, 사망한 아르메니아인은 150만 명에 이른다.⁵⁾ 1915년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수집한 사람은 옥스퍼드의 젊은

1) 「UN body adopts Armenia-initiated Resolution on Prevention of Genocide」, ArmeniaNow, 2015.3.29., <http://www.armenianow.com/genocide/61857/armenia_united_nations_resolution_prevention_adoption> (검색일: 2017.4.20.)

2) Mark Levene, *Genocide in the age of the nation-state. Volume 1, The meaning of genocide* (London; New York: I.B. Tauris, 2008), 42-43. / (Edited by) John K. Roth, *Genocide and human rights: a philosophical guide* (Basingstok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155.

3)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박영은, 「앙리 베르누이(Henri Verneuil)의 자전 영화를 통해 본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상흔과 디아스포라의 양상」, 『영화연구』 66호, 한국영화학회 2015, 74쪽.

4) Robert Melson, *Revolution and genocide: on the origins of the Armenian genocide and the holocau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46-147.

5) David Marshall Land and Christoher J. Waller, *The Armenians, London: Minority Rights Group* (MRG Report No.32, fifth edition, 1987), 8.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nold Toynbee)였다. 이를 계기로 토인비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데, 당시 토인비의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앵글로-아르메니아 협회(Anglo-Armenian Association) 회장 제임스 비스카운트 브리스(James Viscount Bryce)가 오스만제국의 범죄를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토인비가 수집했던 자료는 영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해에 프랑스어로 출판되었다.⁶⁾ 당시 토인비는 유프라테스 강변 백 미터 가량이 시체로 뒤덮였다고 증언하며, 대학살과 악행의 주범으로 터키를 거침 없이 고발했다.⁷⁾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100여년전의 잔혹했던 그 사건에 대해 2015년에는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념하려는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둔 단체나 행사는 없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아르메니아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로마보다 앞선 301년에 성 그레고리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자, 아라랏(Ararat) 산을 민족의 자부심으로 간직하는 영성의 국가이다.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동서남북의 강국 정복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어야 했던 지정학적 숙명으로 인해,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국가였지만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⁸⁾

아르메니아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은 국제관계에서 이웃국가들의 태도, 즉 터키와의 군사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엄준한 역사적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는데 동조하는 여러 국가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중된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형제국이라는 측면에서 터키의 입장에 동조하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영토 분쟁이나 제노사이드 승인에 대한 유럽국가나 미국의 태도 등,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는 오늘날까지도 미묘한 변수와 직결되어 있다.

2017년 3월 기준, 터키(당시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등 31개국이다.⁹⁾ 1965년 4월 20일 우루과이가 아르메니아인의 대량학살을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6) Arnold Toynbee(ed.) *The treatment of Armenians in the Ottoman empire, 1915-16*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16).

7) 로빈 코헨, 유영민 역, 『글로벌 디아스포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민속원, 2016, 93쪽.

8) 박영은, 「한-아르메니아 문화교류 현황 및 문화사업 공동 진흥을 위한 제언」, 『노어노문학』, 한국노어노문학회 29권 2호, 2017, 281쪽.

9) 「Признание геноцида армян」, wikipedia, <https://ru.wikipedia.org/wiki/%D0%9F%D1%80%D0%B8%D0%B7%D0%BD%D0%B0%D0%BD%D0%B8%D0%B5_%D0%B3%D0%B5%D0%BD%D0%BE%D1%86%D0%B8%D0%B4%D0%B0_%D0%B0%D1%80%D0%BC%D1%8F%D0%BD> (검색일: 2018.4.20.)

드로 인정하였다. 이는 제노사이드 이후 남미로 이주한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년 후인 1975년에 사이프러스 정부가 2번째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인정했다. 이것의 배경은 1974년에 터키 군대가 사이프러스의 북부 지역을 침입하여 사이프러스의 분단과 북사이프러스 터키 국가 형성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20년간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인정하는 국가가 없다가 1995년 러시아가 세번째로 제노사이드를 인정하였다. 이후 몇몇 국가들이 제노사이드를 인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1996년 캐나다, 1998년 프랑스, 1999년 그리스, 2004년 네덜란드 등이다. 2015년 4월에 아르메니아인 비극 100주기를 추념하며 7개국 이 동시에 제노사이드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스페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아르메니아 민족의 비극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¹⁰⁾ 이들 국가들은 심정적으로는 아르메니아의 비극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터키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아르메니아의 비극을 공식적으로 공인하거나 터키에 사죄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노사이드 사실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는 이슬람 형제국인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2개국뿐이다.¹¹⁾

전술한 바와 같이, 아르메니아 측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수는 150~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터키 측은 사망자 수를 아르메니아인 30여만명, 터키인 수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터키는 이를 강제 이주에 따른 희생일 뿐이라며, 집단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 대신, ‘아르메니아인 강제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말기에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쌍방 간 인명손실 즉, 아르메니아인들만이 희생자가 아니라 터키인들도 희생되었다는 견해를 계속 관철하고 있다. 한편, 터키 측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군에 합류하여 터키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둘러싼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진작 땅 속에 파

10) 미국은 50개주 중에서 47개주에서 공식적으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의회 투표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통과된 바는 없다.

“Признание геноцида армян” там же

11) 유라시아 역내 이슬람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제르바이잔은 인접국인 아르메니아와의 적대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을 거부하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소연방 해체 직전부터 첨예화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아르메니아와는 준전시 상태이며, 더욱이 아르메니아와 적대관계에 있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긴밀한 전략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아르메니아에 대한 기본 인식은 터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묻었어야 마땅할 침략적 민족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옹호가 지금도 망령처럼 세계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와 망언이 자행되는 가운데, 자신들의 지난한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아르메니아인들과 이에 공감하는 국제사회 예술가들과 영화 제작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양심있는 예술가들은 영화를 통해 그 기억을 담지하며, 세계 시민들에게 잔인한 역사의 실상을 고발하고,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겨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공유했던 것이다.

기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대학살 사건은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참극이었다. 그들은 고대부터 살아온 땅과 가족과 재산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20세기 초에 발생한 이 비극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아픔을 시간의 강물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교과서를 비롯해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회고록,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에 재현된 기억의 정치학을 기저로 아르메니아인들이 제노사이드의 기억을 담아내 왔던 방식의 지형도를 고찰하고, 영화제작을 통해 민족의 정신적 상흔을 치유해가는 소명을 부여받은 감독들이 구현하는 영상 미학을 통해 그들이 국제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영화 제작 역사의 노정(路程)과 지형(地形)

본 연구에서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문제를 주요 테마나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영화들 가운데 영화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작품, 디아스포라 감독들이 제작했지만 아르메니아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작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실험하며 미학적 가치 역시 높은 작품을 중심으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문제에 대한 지난 100년간의 영화 역사 흐름을 조망해 보기로 한다.

1) 영화 제작 동기의 역사적·사상적 분기점이 되는 작품들

1915년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가 발발했을 당시,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던 세계 곳곳의 작가·예술가·음악가들은 이를 테마로 창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영화 제작자

들 역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오늘날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1915년에 <피투성이가 된 동양(Кровавый Восток)>과 <쿠르드족의 억압 아래(Под властью курдов)>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¹²⁾ 하지만 1920년 아르메니아가 소련방 공화국으로 편입되면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문제는 소비에트 체제에서 금기시된 이슈가 되어버렸다.

소비에트 초창기부터 모든 민족들의 형제애를 주창했던 소련 당국은 아르메니아 문제에 ‘반(反)소비에트적 민족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언급하는 지식인들은 가차없이 반소비에트 민족주의자로 몰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거나 처형했다. 스탈린이 권좌에 있는 동안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처절한 침묵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 정권이 들어선 뒤 쌓였던 아르메니아 민족의 한(恨)은 결국 폭발한다.

아르메니아 대학살 50주기를 맞은 1965년 4월 24일,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20만명의 시민이 아르메니아 대학살 인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는 당시 소비에트연방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시위로 소비에트 전역을 뒤흔들었다. 크렘린 당국에서는 이 시위를 반소비에트 시위로 몰아 시위 군중들에 발포를 명령했으나 예레반 정부의 수반은 크렘린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물론 예레반 정부의 수반이 명령 거부로 사퇴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크렘린 당국도 아르메니아 대학살 문제에는 간섭하기를 포기했고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공론화는 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추모 행사가 열렸고 추모탑과 추모단이 설치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 시위로 인해 달라진 사회 분위기는 오랜 세월 공론화될 수 없는 영역이었던 제노사이드 문제를 예술의 영역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구소련 시대에 제작된 주목할 만한 영화가 프룬제 도블라티안(Frunze Dovlatian)의 <안녕, 나야(Hello, It's Me)>(1965)와 <예레반 연대기(Chronicle of Erevan Days)>(1972)였다. 리얼리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들 영화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도덕적 진화나 소비에트 시대에는 억압당했던 그들의 종교나 제노사이드 문제가 다양한 기법으로 암시되고 있다.¹³⁾

헨리크 말랴(Henrik Malyan) 감독의 <트라이앵글(The Triangle)>(1967), <우리가 산이다(We are Mountains)>(1969), <아버지(The Father)>(1972), <나아펫(Nahapet)>(1977) 역시 아르메니아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제노사이드라는 비극적 소재를 독창적인 방식

12) Лариса Малюкова, “Сорок тысяч мертвых окон” *Культура* / Выпуск №29, 24.04.2008.

13) Jean Radvanyi, “Cinema in the Soviet Republics.” / Nowell-Smith, Geoffrey.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UP. 1996), 653.

으로 접근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1977년에 제작한 영화 <나아팻>은 아르메니아 대학살에서 아이와 부인을 잃은 후, 한 남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구축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흐라차 코차르(Hrachya Kochar)가 집필한 소설에 기반하고 있는 이 영화는 강한 의지를 지닌 아르메니아 부족 원로 나아팻의 삶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오스만 군의 침입으로 그의 아이들과 아내는 살해당하고 그는 마을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처남과 친구의 격려 속에서 마지못해 소개해 준 한 여성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이로 인해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가 조금씩 치유를 받는, 전면적으로 제노사이드 문제와 그 트라우마를 다루는 <나아팻>은 제노사이드 영화의 대표적 예로서 인용되어 왔다.¹⁴⁾

나아팻은 죽은 자들을 뒤로하고, 소비에트 아르메니아의 새로운 지역으로 귀속된 아라가츠(Aragats)라는 황량한 마을로 떠난다. 감독은 새로 연을 맺게 된 부부가 혹독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던 중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어느 날 밖에서 일을 하다가 신생아 울음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오는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이런 장면을 통해 감독은 삶에서 박탈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도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동족인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영화는 나아팻과 그의 아내가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 각각을 위한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맹세대로, 새로운 부족을 이루게 된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풍성한 사과나무 아래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나아팻(Наапет)’이라는 단어가 아르메니아어로 ‘가부장’을 의미하듯이, 그는 고통 속에서 재탄생한 아르메니아인들을 이끄는 ‘선조’, ‘조상’ 등의 의미로 확대되는 것이다.

구소련 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제노사이드 문제를 영화로 제작하는 작업은 196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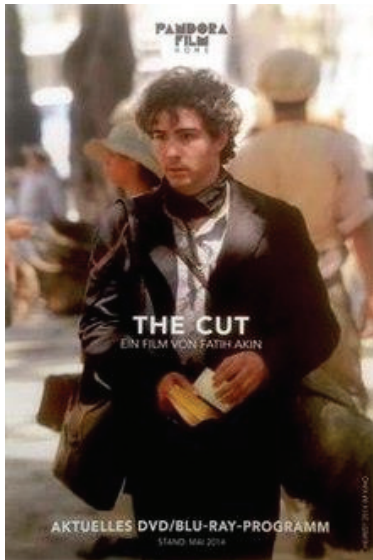
[그림 1] 영화 <나아팻>의 포스터

14) Dinah Shelton, *Encyclopedia of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Macmillan Reference, 2005), 360-361.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소재로 하는 영화와 정치 사이의 긴장관계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터키가 미국 측에 벌이는 여러 로비로 미국 외교관들에 의해 촬영 자체가 좌절되기도 했고, 터키의 압력으로 제작된 영화가 스크린으로 올리지기까지의 장애물 역시 적지 않았다. 완성된 영화가 상영 금지되는 일은 비밀비재했으며,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터키 입국이 금지되기도 했다.

물론,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와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터키의 지식인들이 아르메니아 대학살 개시일인 4월 24일에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움직임이 몇 년전부터 시작된 것이나, 2006년 터키 문학사상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1952~)이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 대전 때 쿠르드족과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했다”라고 고백한 것은 작은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 출신 독일 감독 파티 아킨(Fatih Akin: 1973~)의 영화 <더 컷(The Cut)>(2014)이 제작된 것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더 컷>은 나자렛(Nazareth)이라는 이름의 젊은 아르메니아인의 삶과 경험을 통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조명한 것으로,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부분



[그림 2] 영화 <더 컷>의 포스터

의 경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¹⁵⁾ 영화는 마르딘(Mardin)시에 살았던 대장장이 나자렛과 그의 가족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던 나자렛은 오스만 제국의 비무슬림 소수민족이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고,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애써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오스만제국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쳐 그를 붙잡아 간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도로 건설을 하며 군 복무까지 하게 된 그는 체포되어 무자비하게 끌려가고 심지어 강간을 당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감독이 주인공에게 ‘나자렛’이란 이름을 부여했듯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무수한 상황들은 성서 속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15)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feature films」, Venice, 6 October 2014.

<<https://web.archive.org/web/20141006083927/http://www.labiennale.org/en/cinema/71st-festival/line-up/off-sel/venezia71/>> (검색일: 2017.4.20.)

아르메니아인들도 예수와 같이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서의 메타포를 활용하고 있듯이, 본 영화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당시에 실제 벌어졌던 상황을 재연하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오스만 제국 군인들이 끌려온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을 거절했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사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요구하는 것은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을 구하지만, 거부자들을 학살을 당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나자렛이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독은 인간애를 지닌 터키인들의 형상을 도입한다. 이는 일반적인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인 살해에 가담하길 원했던 것은 아니며,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터키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터키 출신’ 감독의 배려 덕분일 것이다. 학살의 현장에서 나자렛은 선량한 터키인 덕분에 칼에 목을 찢려 병어리가 되긴 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이후, 영화 제목이 암시하듯이 제노사이드로부터 모든 것이 ‘절단(cut)’된 나자렛의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cut’은 나자렛이 병어리가 되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아르메니아 전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상태가 된 것을 상징한다.

가족과 헤어지고 병어리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게 된 나자렛은 피난민 천막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나지만, 고통과 굶주림에 죽어가던 아내의 요청에 따라 아내를 살해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동향인으로부터 아내가 딸들을 살리기 위해 베두인 가족한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딸들을 찾아 나선다. 이로 인해 <더 컷>의 영화 후반부는 딸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변형된다. 그는 딸들의 위치를 수소문하며 알레포, 레바논, 쿠바, 그리고 미국의 노스 다코타까지 이동하게 된다.¹⁶⁾ 그리고 결국 쌍둥이 중 살아남은 딸 한 명과 재회하게 된다.

터키 출신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터키인들에 대한 옹호 역시 영화에는 지배적인 테마로 등장한다. 나자렛이 죽음에 직면한 급박한 순간에도 연민이 강한 한 터키인에 의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터키인들이 그를 도와준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인 터키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자렛은 그를 도와주는 우마이르 나르레딘(Uмайr Nasreddin)라고 불리우던 알레포에서 온 비누장수를 만나게 된다. 비누를 제조하고 판

16) 「Fatih Akin's Film on 1915 to Premiere at Venice Film Festival」, *Armenian Weekly*, 24 July 2014. <<https://armenianweekly.com/2014/07/24/genocide-film/>> (검색일: 2018.4.20.)

매하는 이 사람은 나자렛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은 살아남은 희생자들을 도와주는 ‘비누장수’의 형상을 통해, 제노사이드의 방관자였던 터키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듯한 정화의 은유를 입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살에 대해 일반 터키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제노사이드는 상당부분 정치적 의지와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강변하고 싶은 제작자의 의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더 컷>이 베니스영화제에 상연될 때 터키 민족주의자들이 영화 상영을 반대하며 파티흐 아킨을 심하게 협박했다고 한다. 더불어 감독은 영화 개봉을 할 때 자신이 보디가드를 대동해야 했던 상황과 함께 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는 터키에서 자신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며, 이 영화를 촬영한 이후로는 터키를 방문할 수 없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¹⁷⁾

터키 출신 감독이 제작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더 컷>과 아울러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100주기를 추념하며 기획한 <약속(The Promise)>(2016) 역시 영화 역사상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호텔 르완다(Hotel Rwanda)>의 감독 테리 조지(Terry George)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

었다. 1994년 르완다의 두 부족간에 벌어진 내전과 대학살로 무려 백만명의 희생자를 남긴 아프리카의 재앙을 담은 <호텔 르완다>의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테리 조지 감독은 민족의 대학살이나 제노사이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화에 합류한다는 것은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이슈를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것이다.

오스만제국 마지막 해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는 오스카 이삭(Oscar Isaac), 샬롯 르 본(Charlotte Le Bon)과 크리스찬 베일(Christian Bale)과 같은 스타급 배우들이 활약했다. 또한 영화의 전체 제작비를 키르크 커코리안(Kirk Kerkorian)이라는 아르메니아 출신 미국사업가가 기부했다는 점에서도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거주하는 아르메니



[그림 3] 영화 <약속>의 포스터

17) 「‘I have to stay away from Turkey’ - director Fatih Akin」, *Ahval*, 4 April 2018.

<<https://ahvalnews.com/turkey/i-have-stay-away-turkey-director-fatih-akin>> (검색일: 2019.2.15.)

아 거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졌다. 영화는 2016년 9월 11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되었으며, 제노사이드 102년 주기가 되던 2017년 4월 21일에 미국에서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1914년 아르메니아에서 시작하여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약제상 미카엘의 동선을 따른다. 오스만 제국 동남부의 작은 아르메니아 마을에 살았던 그는 의대 학비 충당을 위해 지참금이 많은 부유한 이웃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다. 이 약혼은 그가 콘스탄티노플을 여행하고 제국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 준다. 그곳에서 미카엘은 고위급 터키 관리의 아들 ‘엠레’와 친구가 되며, 부유한 삼촌을 통해 파리에서 자란 아르메니아 여성인 ‘아나’도 만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져 가는 분위기에서 각각 약혼자가 있던 미카엘과 아나의 사랑 역시 점점 깊어간다.

이 과정에서 미카엘 역시 오스만제국의 압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미카엘은 터키 고위관료의 아들이자 대학 동급생이던 엠레의 도움으로 오스만 군대의 징병을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1915년 4월 24일의 대대적인 검거동안에 삼촌이 구금되자 삼촌을 구하려다 그 자신이 교도소 노동수용소로 보내진다. 결국에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 수용소를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의 설득으로 아나를 가슴에 품은 채 정혼해 둔 약혼녀와 결혼하게 된다. 이후 그는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적십자 시설에 삼촌 가족과 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압박한 터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미카엘의 거의 모든 가족들이 터키 군에 의해 살해당한다. 마지막에 터키의 포병 공습을 피해 배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나마저 익사당하고, 그에게는 삼촌의 딸인 ‘예바’만이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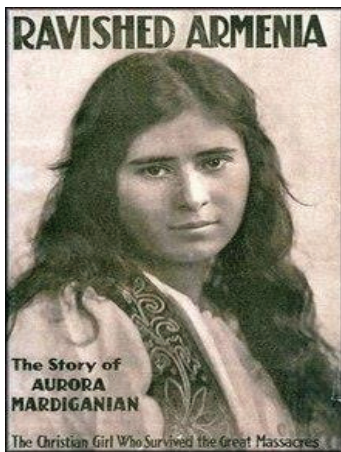
그리고 영화는 시간을 이십년 이상 뛰어넘어, 미카엘이 메사추세츠 주의 워터타운(Watertown)에 정착한 후, 부모를 잃은 후 자신의 딸로 입양했던 예바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장면을 제시한다. 1942년으로 설정된 예바의 결혼식에는 터키의 포병 공습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게 된 당시의 아르메니아 고아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 자리에서 미카엘은 참석한 젊은이들과 가족들에게 행운을 기원해주며 미래 세대를 축복해준다. 즉 <약속>이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이니 만큼,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로 인한 무수한 디아스포라 현상 가운데에서도 미국에 정착한 이주민의 한 단면을 영화화 한 것이다.

이처럼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제작하느냐에 따라 영화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 영화의 경우에는 로빈 스위코드(Robin Swicord)가 집필한 미완성 영화대본 ‘Anatolia’가 토대가

되긴 했지만 테리 조지가 영화 대본을 다시 썼다는 점에서,¹⁸⁾ 영화에는 감독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테리 조지 감독이 아직은 국제사회에 덜 알려진 제노사이드 관련 소재를 발견하고 이를 영화로 제작하긴 했지만, 연인들의 낭만적인 삼각관계를 전면에 배치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¹⁹⁾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이후 100여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관련 영화는 주요 분기점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며 점차 확대되어 왔다. 소비에트에서는 금기시되어 왔던 주제가 ‘아르메니아인들 내부의 목소리’를 담아 아르메니아인 감독이 직접 제작한 작품,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보속하고 회개하는 입장에서 터키 출신 감독이 제작한 작품, 제노사이드 문제에 관심이 있던 세계적인 감독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킨 작품 등으로 진화해 왔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으로 해당 문제가 오롯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들과 국제사회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 주제와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다층적으로 변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아르메니아의 민족 정체성을 지닌 디아스포라 출신 감독들의 작품들



[그림 4] 영화 <강간당한 아르메니아>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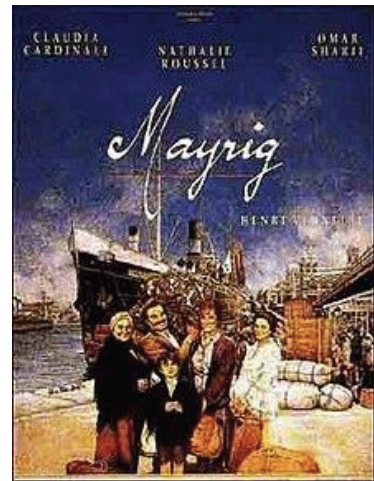
러시아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제작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영화들은 대학살을 피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간 후손들이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의 방증(傍證)이다. 더불어 이러한 시도의 산물들은 그 자체로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diaspora)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디아스포라 출신 감독이 제작한 최초의 영화는 미국에서 제작된 오스칼 애플(Oscar Apfel)의 <강간당한 아르메니아(Ravished Armenia)>(1919)이다.

18) Christopher McKittrick, 「Filmmaking is a Marathon: Robin Swicord on Wakefield」. *Creative Screenwriting*, 24 May 2017. <<https://creativescreenwriting.com/wakefield/>> (검색일: 2019.2.15.)

19) Benjamin Lee, 「The Promise review—Oscar Isaac tackles Armenian genocide in cliched but involving romance」 *The Guardian*, 13 Sep 2016. <<https://www.theguardian.com/film/2016/sep/13/the-promise-review-oscar-isaac-armenian-genocide-christian-bale-toronto-film-festival>> (검색일: 2018.4.20.)

그런데 이 책은 아우로라 마르디지아니안(Aurora Mardigianian)의 회고록 『The Auction of souls』을 기반으로 제작된 무성영화이다. 작가이자 아르메니아 출신 미국배우인 그녀는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생존자이다. 즉 영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 회고록의 저자인 것이다.²⁰⁾ 제노사이드 문제의 대표적 학자인 허버트 허시(Herbert Hirsch)가 연구자들은 그 어떤 사회과학 자료보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주장한 바 있듯이, 여기서 생존자들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기에 이 분야에 대한 또 다른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다.²¹⁾ 때문에 아르메니아에서 제노사이드를 목격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 소녀의 기록은 참상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며, 그녀가 출연하여 개인과 민족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영화 역시 그 자체로 소중한 기록인 셈이다.

이후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감독인 앙리 베르누이(Henri Verneuil, 1920~2002)의 자전 영화 <메이리그(Mayrig)>(1991)와 그 후속편인 <파라다이스가 588번지(588 Rue Paradis)>(1992)는 디아스포라 출신 감독의 작품으로서 영화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의미있는 시도였다.²²⁾ 아르메니아어로 ‘어머니’를 뜻하는 영화 <메이리그>는 앙리 베르누이가 6살 소년이었던 당시의 시선을 통해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한 가족이 프랑스의 마르세이유로 이주하는 삶을 그린 작품이며, 그 후속편인 <파라다이스가 588번지>는 성년이 된 앙리 베르누이가 선박 조선 기술자를 그만 두고 영화감독으로 활약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다. 이 두 편의 영화는 오마 샤리프(Omar Sharif)²³⁾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Claudia Cardinale)와 같은 거물급 배우를 초빙해 그들의 중후한 연기력을 통해 아르메니아 이민자들의 애환을 잔잔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그림 5] 영화 <메이리그>의 포스터

20) 「A cinema history: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best films worldwide. “Ravished Armenia(1919)”」, A Cinema History, 15 July 2014.

<<http://www.acinemahistory.com/2014/07/ravished-armenia-1919.html#/2014/07/ravished-armenia-1919.html>> (검색일: 2018.4.20.)

21) 허버트 허시, 강성현 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책세상, 2009, 78쪽.

22) 박영은, 「앙리 베르누이(Henri Verneuil)의 자전 영화를 통해 본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상흔과 디아스포라의 양상」, 앞의 논문, 73~104쪽.

23) 주인공 아자드의 아버지인 하콥 역을 맡은 오마 샤리프는 이 영화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터키에 입국이 금지되기도 했다. Лариса Малюкова, “Сорок тысяч мертвых окон” *Культура* / Выпуск № 29, 24.04.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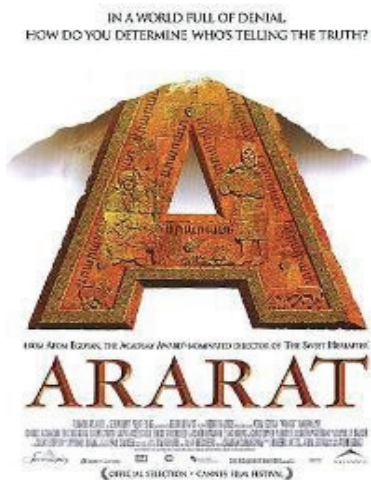
<메이리그>와 <파라다이스가 588번지>라는 두 편의 영화는 앙리 베르누이 자신이 쓴 소설 『메이리그(Mayrig)』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기 이전에도 이 감독이 인간의 삶을 잔인하게 파괴한 나치즘을 고발했던 <25시(La Vingt-cinquene heure)>(1967)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대학살이라는 집단적 폭력의 문제가 그의 뇌리에 어느 정도 깊이 각인되어 있었는지를 유추하게 한다.

아픈 역사를ダイ내미한 할리우드 스타일과 실험적으로 결합한 아르메니아 태생 캐나다 감독 아툼 에고이안(Atom Egoyan: 1960~)의 <아라랏(Ararat)>(2002) 역시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아툼 에고이안은 자신의 조부모도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고백한 바 있다. 아툼 에고이안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캐나다-프랑스 역사드라마인 이 영화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기간 동안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진리의 본질과 예술을 통한 그것의 표현을 탐색하는 작품이다.

<아라랏>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에 대한 역사영화의 촬영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액자 영화구조를 지닌 이 작품에는, 아르메니아 영화감독인 에드워드 사로얀(Edward Saroyan)이 토론토에 도착하는 것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그의 영화에 담기는 내용이 아르메니아 학살, 반 저항, 그리고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화가 아르칠 고르키(Arshile Gorky)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화가 고르키에 대한 미술사 강의를 하는 분이 역사 컨설턴트로 고용된 ‘아니(Ani)’이다. 영화 내 구조인 이 플롯과 병행해서, 영화에

는 예술사학자인 ‘아니’와 터키 대사에 대한 살해 음모 후에 투옥된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사이에서 열키고 설킨 관계의 역사가 전개된다. 동시에 영화는 이 아르메니아 가정의 모습을 통해 끔찍했던 그들의 과거와 그 상흔이 남겨진 현대 아르메니아 청년들의 정신적 방황의 문제를 병치시키고 있다.

영화 제작 초기에는 아툼 에고이안의 영화 제작 동기가 회자되었다. 감독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아들 아르실(Arshile)이 여섯 살 되었을 무렵, 선조들의 제노사이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때 아이가 그의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터키인들은 미안하다고 했나요?”²⁴⁾라고 반문했다고 한



[그림 6] 영화 <아라랏>의 포스터

24) Maryann Bird, 「Moving the Mountain」, *Time*, 20 April 2003.

다. 영화 <아라랏>은 이런 아이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²⁵⁾

당시 <아라랏>의 영화제작과 상영 과정에서도 터키 측의 방해가 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르메니아 영화평론가 발레리 가스파란(Valeri Gasparyan)은 자신이 아툼 예고안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얘기, 즉 감독은 정치상의 논란을 피하려고 작품을 콩쿠르에 출품하지 않고 그냥 상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터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증언을 전달한 바 있다.²⁶⁾

캐나다에서 제작된 <아라랏>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영화 <종달새 농장(The lark farm)>(2007)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탈리아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거장 비토리오 타비아니(Vittorio Taviani: 1929~)와 파올로 타비아니(Paolo Taviani: 1931~) 형제도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소재로 2007년에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인 이 작품은 안토니오 아르슬란(Antonia Arslan)의 소설 『La masseria delle allodole』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저자는 아르메니아 출신인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통역사인데, 이 책은 이탈리아에서 8번이나 출판되는 동시에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문학상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오스만제국이 저지른 집단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이탈리아로 도피한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감독은 소설 내용이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 아르메니아 출신 유모가 들려주었던 대학살에 대한 얘기들이 오래도록 그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 이것이 제작 동력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⁷⁾



[그림 7] 영화 <종달새 농장>의 포스터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901030428-444961,00.html>> (검색일: 2018.4.20.)

25) Roger Ebert, 「Ararat」, *Rogerebert.com*, 22 November 2002.

<<https://www.rogerebert.com/reviews/ararat-2002>> (검색일: 2018.4.20.)

26) 이것은 필자가 2017년 4월 아르메니아를 방문해서 영화평론가 발레리 가스파란(Valeri Gasparyan)을 인터뷰했을 때 들은 이야기이다.

27) 2007년 감독들은 예레반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그 시상식에서 감독은 어린 시절 집에 아르메니아인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들에게 대량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설속의 가족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아바키안(Avakian) 가족의 이야기로 환치되고 있다. 감독들은 아바키안 집안을 통해 당시 터키인들 또한 아르메니아인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있으며 이 집안의 막내딸 누니크는 터키 군인과 사랑에 빠져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집안 장남에게는 아버지 유언에 따라 ‘종달새 농장’이 상속되고, 아르메니아 유지로 살고 있는 동생 아람(Aram)은 형의 귀국을 준비하며 농장을 수리하는 대학살 직전의 평온한 일상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와 내통한다는 명목으로 학살을 명했고, 이후 그들이 모두 종달새 농장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개인과 국가의 정치적 입장 충돌로 무력한 개인들의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영화에서 아바키안 가족은 터키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터키의 적대감 고조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터키의 아르메니아 마을에 거주하던 지주인 아람과 베니스에 거주하는 의사 아사두르(Assadour)가 가족 상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가족이 갖고 있던 환상은 터키 군부대가 집으로 쳐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가족구성원 모두를 몰살시키며, 여인들은 시리아 사막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무너져버린다.

영화에서 아바키안 가족의 남자들은 모조리 살해되고,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린 소녀로 분장한 아베티스와 함께 살아남은 여성들은 터키 호송대에 의해 사막을 가로질러 길고 긴 굴욕적인 행군을 감행하고 있다. 여기서 누니크는 어린 조카들과 아베티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한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그녀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유수프라는 터키 호송대를 만난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그녀가 다른 터키군인들에게 더욱 가혹한 학대를 받지 않도록 그가 직접 누니크를 총살한다. 터키인들의 더 잔인한 고문에서 그녀의 영혼을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자신이 누니크의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열린 재판에서 유수프는 용기를 내어 터키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공식적으로 비난한다.

아르메니아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편이다. 아르메니아 출신이 아닌 감독들이 나름대로 ‘공정한’ 시선으로 대학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이다.²⁸⁾ 또한 영화

28) 2017년 4월 17일 필자와 아르메니아 영화평론가 발레리 가스파란과의 인터뷰 내용 인용.

본 인터뷰에서 발레리 가스파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가 제작됐는데, 그 가운데 《종달새농장》은 선도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국적이 다른 감독들이 다루었다는 점이다. 만일

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2007년 제57회 베를린영화제에서 초연되기도 했다. 영화가 개봉된 날에는 기자회견장에 터키 기자들도 많이 참석해서 조직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막기 위해 보안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영화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고 전해진다. 이 영화는 2007년 제4회 ‘황금살구’ 예레반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는데, 여기서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감독들이 아르메니아 대학살 인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 수상하기도 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메니아 출신 디아스포라 감독이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감독들은 제노사이드와 그 부산물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영화에 담으며, 부모나 조부모의 기억과 증언을 예술적으로 투사하고 있다. 강제이주나 망명으로 평생을 타국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르메니아의 뿌리와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이 접한 이야기들을 예술가의 ‘양심에 따라’, 무엇보다 외부세력의 비판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적·미학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노력은 영화 역사에서도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3) 미학적 관점에서 다큐멘터리와 예술영화의 다양한 영상 기법을 실험한 작품들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문제를 주 테마로 하는 작품들은 사실상 유사한 소재를 다루는 만큼, 이를 제작하는 감독들은 무엇보다 과거에 제작된 작품과는 차별화된 기법이나 양식을 투영하며 자신만의 독창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아르메니아 후손들의 기억을 담는 다소 ‘밋밋한’ 자전적인 영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이내믹한 할리우드 스타일과 결합한 실험영화나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현장을 탐사해가는 영화, 그리고 조국애라는 거시담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결합하는 독특한 작가주의 예술영화까지 다층적인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큐멘터리로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세계적 거장 세르게이 파라자노프(Sergei Paradzanov)의 예술적 동지였던 미하일 바르타노프(Mikhail Vartanov: 1937~2009)의 <아르메니아 대지의 빛깔(The Color of Armenian Land)>(1969)을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부모가 제노사이드의 생존자였던 감독이 신생아의 눈으로 아르메니아 대지를 무한히 응시하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자질과 아르메니아 특유의 영화 미학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바르타노프는 1987년에는 대

타비아니 형제들의 몸속에 아르메니아인 피 한 방울이라도 있었다면 이 영화의 인기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29) 마르티로스 M. 바르타노프, 김은혜 역, 「미카일 바르타노프, 그의 미지의 영화, 에세이, 예술에

학살에서 생존한 90세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지워진 얼굴들(Erased Faces)>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 격변의 세월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스탈린 시절에 자민족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박해로 ‘지워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수감중인 지인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볼까봐 사진앨범 속 단체사진에서 그들의 얼굴을 지우게 된다.³⁰⁾ 유사한 문제는 아르타바즈드 펠레시안(Artavazd Peleshyan: 1938 ~)의 영화 <우리>(1969)에서도 암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유문필가이자 저널리스트,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는 수잔 하르달얀(Suzanne Khardalian: 1956~)의 <할머니의 문신(Grandma's Tattoos)>(2011)은 21세기에 제작된 동일 주제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는 오스만 터키족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집단학살한 시리아의 사막에서 시작된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시신이 묻혀 있고, 사막의 모래 밑에서 백년전의 선조들의 뼈가 나오는 현장에서 수잔 하르달얀은 오래도록 금기시되어 왔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그녀가 이곳 시리아 사막에 오게 된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였다. 사실 수잔 하르달얀은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제노사이드와 여성의 희생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프랑스 문서고에서 자신의 할머니의 몸에 있던 문신을 연상시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8] 영화 <할머니의 문신>의 포스터

수잔은 어린 시절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따듯한 법이 없었고 항상 무언가 원통함을 품고 있는 듯한, 차가웠던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린다.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본 문신을 어두운 세상에서 온 악마 같은 표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상기한다. 당시 할머니 손과 얼굴에 있던 문신에 대해서는 애기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린 시절 할머니를 사악한 여자로까지 기억했던 것은 할머니가 어떤 스킨십도 경멸하며, 문신을 숨기려 항상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그 의문을 해결하려 문제에 한 발자국씩 다가간다. 이로서 영화 <할머니의 문신>은 가족의 비밀로 향하는 여행으로 치환되며 오랜 추적 끝에 결국, 할머니에게 새겨진 푸른 자국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다.

대하여], 『특별기획 프로그램. 자유를 찾는 영원한 여행자들: 세르게이 파라자노프와 미카일 바르타노프』, 부산국제영화제, 2012. 37~38쪽.

30) 위의 책, 43쪽.

그녀는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할머니는 터키 어딘가에서 여러 해 동안 납치되어 노예로 지냈던 겁니다. 할머니는 또한 가족에 표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재산처럼 강제표식, 즉 문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할머니의 삶에 얼룩진 수치심, 죄책감, 분노에 공감합니다. 할머니의 운명은 개인적이고 특별한 일탈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납치되어 강간당하고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감독은 전혀 예기치 않게, 제노사이드 기간 동안 강제로 문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도 유명같은 그녀들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를 꺼내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감독은 비밀스런 전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스웨덴으로부터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그리고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게 한다.³¹⁾

다큐멘터리에서 수잔은 할리우드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 언니인 98세 루시아도 방문한다. 루시아도 그 이상한 문신을 몸에 지니고 있다. 계속해서 수잔은 베이루트에 생존해 계신 할머니의 자식인 마리 이모도 만난다. 하지만 마리 이모는 이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할머니가 결코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 자체가 금기시된 문제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수잔 하르달얀은 1915년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매춘의 길에 접어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문신을 몸에 지닐 수밖에 없었던,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수천 명의 아르메니아 여인들의 베일을 벗긴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연합군은 전쟁 기간 동안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매춘부가 되거나 강제결혼이나 강간을 당한 후 아이를 낳은 90,819명의 아르메니아 어린소녀와 아이들의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여성들 중 상당수는 납치되었다는 흔적으로 문신을 해야 했다. 이에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은 베이루트, 마르세이유, 프레스노 등 전 세계에 흩어져간 수천 명의 난민을 구했다. 이 과정을 거쳐 많은 여성들이 탈출했고 아르메니아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문신이 새겨진 여성들이 아르메니아로 귀환했지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른바 ‘과

31) 「Grandma's Tattoos': A Riveting Film About the Forgotten Women of Genocide」, *The Armenian Weekly*, September 7, 2011.

<<https://armenianweekly.com/2011/09/07/%E2%80%98grandma%E2%80%99s-tattoos%E2%80%99-a-riveting-film-about-the-forgotten-women-of-genocide-trailers/>> (검색일: 2019.2.15.)

거의 주인'들을 다시 찾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얘기는 일종의 타부가 되어, 아르메니아 사회 내에서도 수치스러운 그 무엇으로 숨겨져 있었다.³²⁾ 하지만 감독은 직접 추적을 통해 얼굴과 팔에 이 문신을 지니고 살았던 여성들의 얘기를 용감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형식 외에도, 제노사이드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와 현재, 신화와 일상, 가상과 현실을 병치시키는 실험적인 형식을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아톰 에고이안이 <아라랏>에서 '영화 속 영화'의 형식으로 촬영 중인 역사 장면들과 그것이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을 하나로 결합하며, 역사극처럼 아르메니아인 학살 장소를 제시하고 그 현장을 촬영하며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영화는 아르메니아 출신 미국 화가인 고르키라는 인물의 프리즘을 통해 제노사이드에 대한 영화를 할리우드 스타일로 제작하려는, '사로얀'이라는 아르메니아인 영화감독의 자취를 따라가는 구조이다. 때문에 영화에서 재연되는 칼부림이나 무시무시한 폭압의 장면은 사로얀이 촬영한 영화의 범주에서이다. 여기서 사로얀은 어린 시절 대학살 사건의 목격자였던 화가 아르칠 고르키의 시선을 통해 당시 사건을 추적해간다.

영화는 스토리 내 스토리 구조를 사용하여 대학살과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재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영화가 진실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지를 탐색해간다.³³⁾ 또한 이 영화에서는 제노사이드 자체보다도 이후 세대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세대 간 격차의 문제에도 주목한다.³⁴⁾ 동일한 사건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퇴색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화의 서사를 지켜내는 주축이 '아라랏 산(Mount Ararat)의 사진'과 아르칠 고르키가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사진'이다. 영화에서 고르키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제노사이드 역사와 현재의 삶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³⁵⁾ 학살 현장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고국 아르메니아에 대한 그리움으로 환치된다. 또한 영화 제목이기도 한 '아라랏

32) 2017년 4월 20일, 아르메니아 영화평론가(Ani Hakobyan)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만일 <할머니의 문신>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아르메니아 여인이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수잔 하르달얀과 같은 여성이 아르메니아에 계속 거주했다면 이런 작품을 제작할 엄두를 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수잔이 파리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는 스웨덴에 거주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아르메니아 여성들이 납치되어 노예징표로 문신을 했던 것은 그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아르메니아 남성들에 의해 오래도록 금기시된 주제였던 것입니다.”

33) Tom Dawson, 「Ararat(2003)」, *BBC*, 11 March 2003.

<http://www.bbc.co.uk/films/2003/03/11/ararat_2003_review.shtml> (검색일: 2019.2.15.)

34) Lisa Siraganian, “Hiding Horrors in Full View: Atom Egoyan’s Representations of the Armenian Genocide”, *The Armenian Genocide Legacy* (Palgrave Macmillan, 2016), 299.

35) Ewa Mazierska, *European Cinema and Intertextuality: History, Memory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2011), 47.

산’은 이제는 터키령이 되어 버리긴 했지만, 그에게 여전히 아르메니아 민족의 자부심이자 영혼과 영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문제를 현대 이탈리아 영화의 거장 비토리오와 파올로 타비아니 형제의 <종달새 농장>에서처럼 페데리코 펠리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와 같은 모더니즘 감독들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미학적으로 재연하는 경우도 있다. 폭력에 젖은 부조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던졌던 비토리오와 파올로 타비아니 형제는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소재를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Neo-realism) 스타일과 결합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사실주의를 추구했던 이탈리아 영화의 경향인 네오리얼리즘이 파시스트 정권하의 예술적인 억압에 대항하면서 형성된 영화 운동이었듯이, <종달새 농장> 역시 제1차 대전 전후의 터키를 배경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대학살과 저항이라는 프레임과 예술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종달새 농장>에서 아바키안 집안의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벽에 피가 흩뿌려지는 환시를 보게 되는데 감독은 선명하게 이를 영상에 담고 있다. 아버지는 사망 직전, 남겨진 손자에게 ‘어서 도망쳐라, 자신을 구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닥쳐올 고통에 대한 암시로 기능한다. 특히 영화에서 타비아니 감독들은 죽음을 맞이한 가장의 장례식을 아르메니아 전통 방식대로 재연하며 리얼리티를 부각시키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체성에 대한 고수와 그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이 긴장감을 주는 영상미학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공포에 대한 사실주의적 재현과 함께 뉴스나 실제 사진이 활용된 뉴스영화용 필름의 활용도 돋보인다. 당시 오스만제국 하의 터키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의 대학살 사진이 그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당시의 꾸미지 않는 다큐멘터리적 진실을 관객들이 체감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감독들은 기존 원작소설이나 자신이 쓴 회고록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때문에 감독들이 영상을 통해 인권유린과 학살의 문제를 세계인들에게 침윤시키는 기법을 정치(精緻)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작은 씨앗이자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만나 집단지성을 이룰 때 영화의 주제와 영상 미학의 결합, 즉 상처받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혼이 영상으로 재연되는 현장을 ‘솔직하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나오는 말 :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집단기억’의 예술적 재현과 성찰

과거의 제노사이드 문제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발발하고 있는 분쟁의 상당수는 반복되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흘러보낸 ‘기억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과 미사어구를 사용하며 이제는 그만 아픈 과거를 물어버리자고 한다면, 결국 그 진실은 사라지고 말 수밖에 없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선조들이 겪었던 고통이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부터 사라지지 않도록 부단히 영상 기록을 남겨왔던 것이다.

아르메니아 민족이 터키 정부에 대해 무엇보다도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아르메니아 민족을 대학살의 가해자로, 터키 민족을 대학살의 피해자로 만들어놓은 적반하장 격의 역사 기술이다. 그동안 터키 정부는 주로 미국 대학의 역사학자들을 3천만달러 이상의 뇌물로 매수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역사를 왜곡하고, 학살된 아르메니아인들의 수를 15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는 저술을 후원해 왔기 때문이다.

가해국이 진심어린 사과를 커녕 진실마저 은폐하는 상황에서 피해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여기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선택한 것이 세계 곳곳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협회를 통해 1915년 사건이 단순한 유혈 충돌이 아니라 분명한 제노사이드였음을 인정하게 하는 입법로비 활동과 지속적인 영화제작 사업이었다. 그들이 영화 제작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처참했던 ‘기억’을 보존하고 그들의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³⁶⁾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갈무리하며, 본고에서는 1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영화를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받으려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창작의 동인과 그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영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면적 전달’을 넘어서는 서사 방식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영화 제작 동기의 역사적·사상적 분기점이 되는 작품들, 아르메니아의 민족 정체성을 지닌 디아스포라 출신 감독들의 작품들, 미학적 관점에서 다큐멘터리와 예술영화의 다양한 영상 기법을 실험한 작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제노사이드 영화에 대한 예술적·미학적 해석을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제노사이드 문제를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하는 몇 편의 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약해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에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

36) 박영은, 「한-아르메니아 문화교류 현황 및 문화사업 공동 진흥을 위한 제언」, 298쪽.

한 제노사이드나 분쟁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성장시키는 토양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인정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무수한 정치 변수와 맞물려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반성하고 이를 사회적으로도 각인시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제노사이드의 가혹한 기억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며 자민족을 위한 치유를 염원했던 영화 제작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영화 제작을 통해 자신들의 민족 트라우마(trauma) 치유와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예술인들의 정신의 궤적과 지향점을 살펴보는 것은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이를 연구하는 작업 역시 시대적 양심을 대변해야 할 학자들의 마땅한 의무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성진, 『야만의 시대 : 영화로 읽는 세계 속 분쟁』, 황소자리, 2004.
- 김창진, 『영화로 보는 제국의 역사: 문명과 야만의 블록버스터』, 도서출판 자리, 2010.
- 니콜라이 호바니시안,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이현숙 역, 한국학술정보, 2011.
- 도널트 쿼터트, 『오스만 제국사: 적응과 변화의 긴 여정 1700-1922』, 사계절, 2008.
- 로빈 코헨, 『글로벌 디아스포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유영민 역, 민속원, 2016.
- 마르티로스 M. 바르타노프, 「미카일 바르타노프, 그의 미지의 영화, 에세이, 예술에 대하여」, 『특별기획 프로그램. 자유를 찾는 영원한 여행자들: 세르게이 파라자노프와 미카일 바르타노프』, 김은혜 역, 부산국제영화제, 2012.
- 박영은, 「앙리 베르누이(Henri Verneuil)의 자전 영화를 통해 본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상흔과 디아스포라의 양상」, 『영화연구』 66호, 한국영화학회, 2015.
- 박영은, 「한-아르메니아 문화교류 현황 및 문화사업 공동 진흥을 위한 제안」, 『노어노문학』 29권 2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17.
-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강성현 역, 책세상, 2009.
- Toynbee, Arnold.(ed.) *The treatment of Armenians in the Ottoman empire, 1915-16*,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16.
- B. MacDonald, David. *Identity politics in the age of genocide: the Holocaust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8.
- Marshall Land, David and Christoher J. Wallerk, *The Armenians*, London: Minority Rights Group, MRG Report No, 32, fifth edition, 1987.
- Shelton, Dinah. *Encyclopedia of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Macmillan Reference, 2005.
- Moses, Dirk. *Empire, colony, genocide: conquest, occupation, and subaltern resistance in world history*, New York: Berghahn Books, 2008.
- Bloxham, Donald. *The Oxford handbook of genocide studi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Genocide on trial: war crimes trials and the formation of Holocaust history and memor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Mazierska, Ewa. *European Cinema and Intertextuality: History, Memory and Politics*, Palgrave, 2011.
- Balakian, Grigoris. *Armenian Golgotha: A Memoir of the Armenian Genocide, 1915-1918*. New York: Vintage Books, 2010.
- K. Roth, John. *Genocide and human rights: a philosophical guide*, Basingstok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 Siraganian, Lisa. "Hiding Horrors in Full View: Atom Egoyan's Representations of the Armenian

- Genocide”, *The Armenian Genocide Legacy*, Palgrave Macmillan, 2016.
- Levene, Mark. *Genocide in the age of the nation-state. Volume 1, The meaning of genocide*, London; New York: I.B. Tauris, 2008.
- Caswell, Michelle. *Archiving the unspeakable: silence, memory, and the photographic record in Cambodia*,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14.
- Natasha May Azarian, *The Seeds of Memory: Narrative Renditions of the Armenian Genocide Across Generations*. ProQuest, 2007.
- Radvanyi, Jean. “Cinema in the Soviet Republics.” / Nowell-Smith, Geoffrey.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edited by Geoffrey Nowell-Smith). Oxford UP. 1996. pp.651~656.
- Melson, Robert. *Revolution and genocide: on the origins of the Armenian genocide and the holocau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146~147
- Akçam, Taner. *The Young Turks’ crime against humanity: the Armenian genocide and ethnic cleansing in the Ottoman Empi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신문·잡지>

- Lee, Benjamin. “The Promise review – Oscar Isaac tackles Armenian genocide in cliched but involving romance” *The Guardian*, 13 Sep 2016.
- McKittrick, Christopher. “Filmmaking is a Marathon: Robin Swicord on Wakefield”, *Creative Screenwriting*, 24 May 2017.
- Hayrumyan, Naira. “April 24 Analysis: Armenian rhetoric toughens ahead of approaching Genocide Centennial”, *Armenia Now*, 24 April 2013.
- Bird, Maryann. “Moving the Mountain”, *Time*. 20 April 2003.
- Ebert, Roger. “Ararat”, *Rogerebert.com*, 22 November 2002.
- Sassounian, Harut. “Remember, Remind, and Reclaim: Guidelines for the Genocide Centennial”. *Hetq*. 16 April 2013.
- _____. “Turkey Should be Kept in the Dark On Armenian Genocide Centennial Plans”. *Hetq*. 30 January 2013.
- _____. “Turks Help Publicize Armenian Genocide Centennial”. *Asbarez*, 18 December 2012.
- Dawson, Tom. “Ararat(2003)”, 11 March 2003.
- Малюкова, Лариса. “Сорок тысяч мертвых окон” *Культура / Выпуск №29*. 24. 04. 2008.

<온라인자료>

- “A cinema history: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best films worldwide,” Retrieved 15 July 2014.
 “Ravished Armenia(1919)”
<http://www.acinemahistory.com/2014/07/ravished-armenia-1919.html#!/2014/07/ravished-armenia-1919.html>

“Fatih Akin’s Film on 1915 to Premiere at Venice Film Festival”. *Armenian Weekly*. 24 July 2014.
<https://armenianweekly.com/2014/07/24/genocide-film/>

“Grandma’s Tattoos’: A Riveting Film About the Forgotten Women of Genocide”, *The Armenian Weekly*, September 7, 2011

<https://armenianweekly.com/2011/09/07/%E2%80%98grandma%E2%80%99s-tattoos%E2%80%99-a-riveting-film-about-the-forgotten-women-of-genocide-trailers/>

‘I have to stay away from Turkey’ - director Fatih Akin” Apr 04 2018, *Ahval*.

<https://ahvalnews.com/turkey/i-have-stay-away-turkey-director-fatih-akin>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feature films”, *Venice*, 6 October 2014.

<https://web.archive.org/web/20141006083927/http://www.labiennale.org/en/cinema/71st-festival/line-up/off-sel/venezia71/>

“UN body adopts Armenia-initiated Resolution on Prevention of Genocide”, *ArmeniaNow*, 2015.03.29.

http://www.armenianow.com/genocide/61857/armenia_united_nations_resolution_prevention_option

“Признание геноцида армян”

https://ru.wikipedia.org/wiki/%D0%9F%D1%80%D0%B8%D0%B7%D0%BD%D0%B0%D0%BD%D0%B8%D0%B5_%D0%B3%D0%B5%D0%BD%D0%BE%D1%86%D0%B8%D0%B4%D0%B0_%D0%B0%D1%80%D0%BC%D1%8F%D0%BD

<인터뷰자료>

Ani Hakobyan과의 인터뷰(2017년 4월 20일)

Valeri Gasparyan과의 인터뷰(2017년 4월 17일)